

THE BEST *for a*
BETTER WORLD
HANYANG UNIVERSITY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미디어전략센터 | newsh@hanyang.ac.kr
구독 및 주소 변경 [온라인] <https://hyu.ac/hyper> [전화] 070-7711-9933 | 온라인 이북 보기 <https://hyu.ac/hyperzine>
한양뉴스포털 기사로 보기 <http://newshyu.com> | [f](#)@HanyangUniv | [yt](#)@playHanyangUniv | [ig](#)@hanyang_univ



구독 및 주소 변경

HANYANG UNIVERSITY MAGAZINE



다양한 색채로 빛어내는 새로운 클래식의 세계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이는 많지만, 그만큼의 성과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탓이다. 하물며 전 세계를 무대로 삼으려면 노력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현대음악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홍성지 작곡가는 자신만의 색채와 에너지를 담은 선율로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해가는 중이다.
글 김현지 | 사진 제공 홍성지

미국 '2022 뮤직 어워드' 18인 중 한 명이 되다

지난 2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예술단체 미국예술문학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 AAAL)는 미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18명의 음악인을 선정해 공개했다. 발표된 '2022 뮤직 어워드' 명단 속에는 반가운 이름이 포함됐다. '찰스 아이브스 펠로우십(Charles Ives Fellowships)' 수상자 2인으로 홍성지 작곡가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해당 상은 미국 현대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찰스 아이브스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수상자에게는 1만5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300명의 음악가가 후보로 지명돼 각축전을 벌인 끝에 주어진 영광이다.

"수상 소식에 너무 기뻐지만, 사실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주목받는 18명의 음악인 안에 뽑혔다는 사

실이 얼떨떨했죠. 미국에 거주 중이지만, 이곳에서 수학하지 않은 이방인이니까요. 이 상이 지난 25년간 열심히 작곡에 정진해온 시간에 대한 격려로 느껴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뉴욕에서 5월에 진행될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연, 지연을 무시할 수 없다. 예술계 역시 스승과 동문, 지역 클럽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불리한 여건이지만 홍성지 작곡가는 뛰어난 음악성만으로 미국 음악계의 인정을 받았다.

한양대학교 작곡과 졸업 후 영국 런던왕립음악원에서 석사, 요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홍성지 작곡가. 그는 서경선, 로버트 색스턴, 폴 패터슨, 니콜라 레파뉴, 페테르 외트베시, 조나단 하비, 브라이언 퍼니하우, 토시오 호소가와 등을 사사하며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Seonji Hong

1
홍성지 작곡가는 세계
유수의 대회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사진은 2007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드미트리스
미트로폴로스
국제작곡콩쿠르 모습.

2
ISCM 월드뮤직데이즈
2003 슬로베니아,
국제발레음악콩쿠르
1위 수상 시 공연 장면.



넓혀왔다. 한국을 떠난 뒤 영국에서 6년, 그리스에서 7년
을 지냈고 2012년엔 다시 미국으로 건너왔다. 2018년부터
는 노스텍사스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후학을 양
성하고 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모르는 외국인이 대
다수였어요. 잘 모르는 아시아에서 온, 여성인, 현대음악
작곡가에게 쏟아지는 편견이 적지 않았죠. 그 편견을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또 한 나라에서 길게 활동하
지 않다 보니 제 영역을 충분히 확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든 작품만 좋다면 인정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작곡가

홍성지 작곡가는 다양한 연주단체, 솔로리스트, 앙상블,
합창단, 페스티벌로부터 곡 의뢰를 받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저 감사한 일이라고 겸손히 말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만의 선율로 입지를 다진 현대음악 작곡가로 K-클래
식의 선봉에 선 이다.

하버드대학교 프롬음악재단, 미국플룻협회, 유니버설세크
리드 뮤직파운데이션, 국제윤이상협회, 서울시립교향악
단 등으로부터 위촉받았고, 그가 작곡한 곡들은 세계 유
수의 연주단을 통해 46개 국가, 213개 도시에서 연주됐
다. 수상 이력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아시아작
곡가연맹(ACL)의 요시로이리노기념상, 국제여성음악인연
맹(AWM)의 테오도프리트상, 일신문화재단의 일신작곡상
등을 수상했으며, 몬세랏 국제실내음악콩쿠르, 데살로니
키 주립음악원 유러피안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대회에서
1등을 석권했다.

홍성지 작곡가는 독주곡부터 앙상블곡, 오케스트라곡, 합
창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성의 음악을 발표해왔다. ‘미
사 루멘 데 루미네(Missa Lumen de Lumine)’는 대중
에게도 잘 알려진 그의 대표곡이다. 뉴욕타임즈를 비롯
한 수많은 언론사로부터 “무지개 빛깔의 청신한 음악(베
리위더든, BBC 뮤직 매거진)”, “진정 빛을 발하는 음악
(존 스토리, 팡파르 매거진)”이라고 호평받은 바 있다. 그
래미어워드를 수상한 보컬 앙상블 트리오 메디에발(Trio
Mediaeval)의 연주로 ECM 레코드사에서 발매(스텔라 마
리스, ECM 1929)됐는데, 빌보드 클래식 차트와 아이튠
클래식 TOP 10에 올랐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초연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
한 프리즈마틱(Prismatic)’도 그의 입지를 굳히게 한 작품
이다. 홍성지 작곡가의 음악은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처
럼 다채로운 소리와 뻗하지 않은, 탄탄한 구조의 변주로
듣는 이를 매료시킨다.

200년 후에 평가받을 오늘의 클래식을 위해

수많은 장르의 음악 중에서 왜 클래식, 현대음악에 빠지게
됐을까.

“어머니께서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친숙했
습니다. 놀 때도 클래식과 함께했죠. 클래식 라디오 진행
자처럼 곡에 대해 또는 작곡가에 관해 설명하면서 저만의
라디오 쇼를 녹음하는 게 취미였어요.”



여섯 살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홍성지 작곡가는 자
연스럽게 피아니스트를 꿈꿨다. 친구들이 가요나 팝송에
빠지던 초등학교 시절, 그는 음악시간에 들은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발레음악에 매료됐고 차이콥스키를 비롯
해 브람스 교향곡을 즐겨 들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며 화음을 가득 채운 모차르
트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에 빠졌다. 어린 나이임에도 운명처
럼 자신 안의 열정을 마주했고, 그렇게 작곡가의 꿈을 키
우게 됐다.

“한양대 입학과 함께 본격적으로 작곡 공부를 시작했어
요.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됐으니, 작곡 공부에서만
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고 다짐했죠. 정말 열
심히 했습니다.”

그는 졸업 때까지 매년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런던왕립음
악원에도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런던왕립음악원
은 영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유수의 음악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다. 홍성지 작곡가는 이곳에서 공부하며
오히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의 뛰어남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가 긴 시간 해외에서 활동하며, 크고 작은 불이익을 겪

으면서도 ‘한국인 작곡가’로 활동하는 데에는 학창 시절을
향한 애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전 세계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
는 곳이다 보니 처음에는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
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양대에서, 한국에서 익히고 배운
것들, 제가 노력했던 시간이 빛을 발했어요. 제가 가르치
는 학생들에게도 바로 지금, 학창 시절에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빠져들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아직도 텅 빈 오선지를 대할 때면 문득 두려움을 느낀다
는 홍성지 작곡가. 그는 매일 영감을 떠올리려 하고, 곡을
구상하고, 리듬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몸을 단련하
듯, 그렇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
을 그리고 있다.

“요즘은 하버드대 프롬음악재단에서 두 번째로 위촉을 받
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현대음악제에서 초연할 신곡 작
업 중이에요. 누군가에게 미술 같은 순간을 선사하는 음악
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년, 200년이 흘러 지금의
음악이 클래식이 됐을 때 ‘홍성지의 음악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저만의 언어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

3
홍성지 작곡가는
2017년 1년간
한국에 머물며
모교인 한양대학교
강의를 맡는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2017년 12월
서울주니어합창단
정기공연에
상임지휘자로 활약한
모습.